

보도자료

2011년 2월 24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750-2570)
통신자원정책과 이준희 사무관(☎750-2575) info0913@kcc.go.kr

방통위, 통신사업자와 보이스피싱 차단 대책협의

- 공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적 대책을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대책반'을 구성하고 2011. 2. 24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과 공동대책을 수립하여 2009. 5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국제 착신전화에는 별도의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수신하는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우체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 피해규모 : 5년간 2만 6천건(연간 5,200건), 누적 피해규모 2,600억원(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는 ETRI를 통해 인터넷 국제전화의 신호전달 경로를 분석하고 변작된 발신번호를 검색해 차단하는 등의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의 교환시스템 보강, 발신번호 표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책반 명단 1부. 끝.

<붙임>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책반 명단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최재유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준선	
KTOA	사무국장	송석윤	
KT	상무(홈고객전략)	박종진	
SKT	실장(CR부문)	하성호	
LGU+	상무(CR부문)	김형곤	
SKB	실장(CR부문)	이상헌	
온세텔레콤	본부장(기술운용)	배복만	
SK텔링크	실장(전략기획)	서동진	
CJ헬로비전	실장(마케팅)	김신일	
드림라인	본부장(기술)	김창호	
한국케이بل텔레콤	사장(대표이사)	장윤식	
삼성SDS	상무 (통합커뮤니케이션즈사업)	신동경	
한국항공대	교수 (前 KISDI 번호 연구)	김진기	
경희대	교수(정보통신)	김영기	
ETRI	연구원	강신각	